

# 대학졸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김민경<sup>1)</sup> · 류지영<sup>2)</sup>

##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졸업자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졸자의 취업 요인 분석 결과, 전문대학 졸업생은 여성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격증의 효과가 뚜렷하게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졸업생은 의약계열이나 예체능계열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직업훈련을 경험한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수능성적을 포함한 4년제 대졸자의 경우, 수능점수가 높은 경우에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정규 및 대기업 취업 요인 분석 결과, 전문대 졸업생은 여성이 취업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계열은 사회계열보다는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대학 졸업생은 학교소재지가 서울지역인 경우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낮았다. 4년제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은 일관되게 여성이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데이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 I. 서론

청년층의 실업률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층의 취업난은 사회적 이슈가 된지 오래다. 대졸자의 실업은 복합적인 원인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국내 경제 문제를 비롯하여 청년층의 실업문제 역시 국제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더불어 국내 상황 역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노동시장 분절화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초등학교 단계부터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대학 진학 이후에도 소위 취업에 유리한 스펙을 쌓기 위해 영어시험과 어학연수 등으로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0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고용률은 41.4%, 실업률은 6.4%로 발표되었다. 이 중 대학을 졸업하는 연령대를 살펴보면 20-24세의 고용률은 46.2%, 실업률<sup>3)</sup>은 7.3%이고, 25-29세의 고용률은 69.5%, 실업률은 5.8%로 청년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층 내의 연령대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학 재학 중 39.7%가 휴학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휴학 사유가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와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경험’ 등 취업준비와 관련한 사유가 2007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졸업 전부터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부담이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대학재학 중 휴학경험 사유

(단위 : %)

	휴학 경험	휴학사유				
		병역의무 이행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경험	학비(생활비) 마련	기타
2010년	39.7	67.8	19.3	14.8	12.8	9.0
2009년	39.3	70.4	17.2	13.1	12.6	8.3
2007년	36.3	74.4	14.6	10.0	12.8	11.2

\* 휴학사유는 복수응답으로 구성비 합이 100을 넘음  
출처: 2010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이렇듯 청년층 실업문제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늦춤으로써 개인의 부담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낳고 있으며,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해결해 나가야 하는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층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는 국가적 수준에서 표본이 선정되고, 조사 도구와 방식이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졸업자를 전문대와 4년제 대학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취업 상태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정규직 취업여부)와 기업규모(대기업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함께 분석하여 청년층 실업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3) 청년층의 실업률은 다른 연령층의 실업률 보다 2-3배 정도 높은 실정(30대 3.5%, 40대와 50대 2.5%, 60세 이상 2.8%)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편이다.

## II. 선행연구 검토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관련한 이론적 논의에는 노동시장이론과 직업탐색이론,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을 들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이론에는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과 선별이론(Screening theory), 분단노동시장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노동시장이론 중 인적자본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노동시장이론을 종합하면 개인의 교육에 대한 투자행위는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개인의 선택이고, 선별 기능이며, 보다 상위의 계층 또는 집단에 속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으로 귀결된다고 하겠다<sup>4)</sup>. 이를 보면, 좋은 대학의 선택, 취업전망이 밝은 전공 선택, 우수한 학점 취득, 어학연수 경험,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이수 등의 행위들이 모두 취업을 위한, 더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자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입각해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자본이 많을수록 취업을 빨리하고, 대기업에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그 공식이 언제나 들어맞지는 않는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사방식(횡단조사인지 종단조사인지), 표본의 특성, 조사 내용별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에 미치는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는 최근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패널데이터가 활발하게 구축되면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시점에서의 결과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주제를 분석하는데 개인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패널자료<sup>5)</sup>가 적합하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가열, 천영민(2009)의 ‘대졸자 취업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대졸자이동경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개인배경과 구직 준비요인,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조직규모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인적 속성 요인 중 성별과 관련하여 졸업 전후 구직 경험이나 조직규모에 상관없이 남성의 취업확률이 높았고, 대학 유형은 졸업 전후 구직 경험과 조직규모에 따라 취업 확률에 달리 영향을 미치며, 전공계열과 관련하여 전공계열별로 다소 상이한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소재대학 출신 여부는 대규모 업체에 취업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와 동일한 주제의 조민수(2008)의 연구는 출신대학에 따른 대졸자 취업결정 요인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취업의 양적인 측면(취업여부)과 질적인 측면(취업한 기업규모, 고용형태)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출신대학지격, 전공, 직업훈련 여부, 연령, 기혼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4) 각 이론별 상세한 논의는 조민수(2008) 참조.

5)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한 분석이 가능한 대표적인 국내 패널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패널(KLIPS, 한국노동연구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 한국고용정보원), 여성가족패널(KLoWF,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있음. 각 패널별로 표본과 문항별 특성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행 과정 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 분석을 하는데 매우 유용함.

나타났다. 대기업 취업과 정규직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업훈련 여부와 어학연수 경험이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채창균, 김태기(2009)의 연구에 따르면, 가구소득이나 출신대학, 전공 등의 변수가 대졸 청년층의 취업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반면, 학교의 교육적 지원 노력이나 재학 중 일자리 경험, 해외어학연수, 자격증 취득과 같은 취업준비를 위한 노력은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대학생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요인으로는 대학 재학시 학점이었다. 본 분석 역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이용하였다.

김희삼(2010)은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연구에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른 조건이 유사할 때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가 서울 소재 대학졸업자에 비해 약 16%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두 지역 간의 임금 격차 3분의 2가량이 입학 당시의 학과 평균 수능점수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수능점수자료를 변수화 하여 분석에 사용하기로 한다.

이 외에도 대학의 지역에 따른 유사 연구로는 최바울, 김성환(2003)의 연구가 있는데, 청년패널 1-2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학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이행과정과 성과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구직경로, 직장선택기준, 취업시 장애요인, 일자리의 특성, 만족도 등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졸업자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비수도권 졸업생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고용유지율이 높고, 노동시장 진입률은 낮았으며, 미취업 졸업생 중 상대적으로 남성, 비수도권, 이공계 졸업생들의 취업 이행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엽·최문경(2008)의 연구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졸업에서 첫 직장까지의 이행기간을 분석하는데, 분석방법은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이 분석에는 시간 개념이 포함되고, 첫 직장의 경험이 없는 집단을 고려하여 해저드 모형을 사용한다. 해저드 모형에서는 종속변수로 해저드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직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어떤 시점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게 될 확률을 말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첫 직장을 시작할 확률을 말하고 설명변수로는 학교등급, 학점, 전공계열, 어학연수 경험, 복수전공, 직업훈련, 아르바이트 경험, 가구소득, 성별, 지역, 구직기간, 구직방법, 구직방법의 다양성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차년도(2009년)조사 시점에서 졸업자를 가려내고 이들의 현재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나, 추후 4년제 대학생까지 직장을 가질 기간이 충분해지고 좋은 일자리까지 이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위의 분석방법 도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자격증이 취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김안국, 강순희(2004)에서 남

6) 본 연구는 조민수(2008) 연구의 분석틀과 가장 유사함.

자의 경우에는 취업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채창균 외(2005)에서도 자격증이 취업이나 정규직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황여정, 백병부(2008)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자격증 취득이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채구목(2007)의 연구에서는 취득자격증의 전공 및 취업관련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박완성(2008)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과 관련하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이 없는 경우보다 취업 가능성이 높으며, 자격증이 있으면서 재학 중 직장에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어학연수 변수의 경우에도 채창균 외(2005)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황여정, 백병부(2008)의 연구에 따르면 어학연수 비용이 취업여부와 대기업 정규직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대학의 학점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취업할 확률이나 첫 직장을 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변수의 경우 기업규모와 상관관계가 있는데, 대기업 취업에 학점이 영향력을 차지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정태영, 이기엽, 2005)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출신대학의 지역이나 전공, 학점 등의 경우에는 취업에 미치는 효과가 연구마다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인의 가구 배경 변수나 취업준비를 위한 활동은 연구들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에도 분석모형과 도구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 있었다.

###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 중 고등학교(2004년 당시) 코호트<sup>7)</sup>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코호트만 분석한데에는 6차년도(2009년)까지 데이터가 공개된 상황에서 중학생 코호트의 경우는 전문대학 졸업자는 있으나 아직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학생 코호트의 경우 6차년도 데이터에는 전문대 졸업자 중 여성들은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 남성들 중 군 입대를 한 경우에는 졸업시점이 된다. 또한 4년제 대학을 다닌 학생들의 경우 졸업하여 첫 직장으로 이동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학교 및 전공별로 취업상태를 파

7)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2004년 조사 당시 중학교 3학년 코호트 2,000명,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2,000명,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크기는 중학생 코호트와 고등학생 코호트로 나뉜다.

약할 수 있으며 교육과 노동시장 성과를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범위는 1차년도에서 6차년도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는데, 특히 대학졸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6차년도 자료에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009년 8월이나 2010년 2월)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최종 분석 대상은 전문대학 졸업생 509명, 4년제 졸업생 353명으로 총 862명이며, 대학유형별로 성별, 전공계열, 대학소재지, 취업여부, 취업한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의 빈도와 비율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전문대		4년제	
		빈도	%	빈도	%
성별	남성	168	33.0	48	13.6
	여성	341	67.0	305	86.4
	합계	509	100	353	100
전공계열	인문	19	3.9	37	10.5
	사회	109	22.2	107	30.5
	교육	32	6.5	33	9.4
	공학	128	26.1	51	14.5
	자연	48	9.8	50	14.3
	의약	72	14.7	15	4.3
	예체능	83	16.9	58	16.5
	합계	491	100	351	100
대학 소재지	서울	46	9.4	72	20.6
	경기	162	33.1	44	12.6
	충청	62	12.7	87	24.9
	경상	102	20.9	77	22.0
	전라	117	23.9	70	20.0
	합계	489	100	350	100
취업여부	취업	350	68.8	186	52.7
	미취업	159	31.2	167	47.3
	합계	509	100	353	100
고용형태	정규직	271	80.4	116	64.8
	비정규직	66	19.6	63	35.2
	합계	337	100	179	100
기업규모	대기업	125	38.1	57	32.6
	중소기업	203	61.9	118	67.4
	합계	328	100	275	100

먼저 성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문대의 경우 남성이 33%(168명), 여성은 67%(341명)로 여성이 2배 정도 더 많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성들은 군 입대를 하기 때문에 동

일한 졸업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성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현상은 4년제 대학에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남성이 13.8%이고, 여성은 86.4%에 이르러 사실상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여성에 대한 결과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sup>8)</sup>

전공계열의 경우 전문대는 공학계열이 26.1%로 가장 많았고, 사회계열 22.2%, 예체능 계열 16.9%, 의약계열 14.7% 순이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사회계열이 30.5%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 계열 16.5%, 공학계열 14.5%, 자연계열 14.3% 순이었다. 의약계열의 경우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의 경우 6년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간호학과일 가능성이 높으며, 4.3%로 비율이 낮았다. 대학 소재지의 경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거나,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로는 본 연구의 자료에는 전문대 표본이 더 많은데, 전문대 졸업자의 특성상 학교와 동일한 지역으로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5개 권역은 서울, 경기(경기, 인천), 충청(대전, 충남, 충북), 경상(부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전라(광주, 전남, 전북)로 구분하였다. 대학유형별 분포를 보면, 전문대에서는 경기지역이 33.1%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역이 9.4%로 가장 적었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다음은 종속변수인 취업여부와 고용형태, 기업규모에 대한 분포이다. 전문대 분석대상자 509명 중 취업자는 68.8%였고, 4년제 대학 대상자 353명 중 취업자는 52.7%였다. 고용형태는 전문대가 80.4%로 매우 높은 편이고, 4년제 대학의 경우 64.8%로 졸업 직후 초기 노동시장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편이었다. 기업규모 변수에서 전문대는 종사자 수 100인 이상의 대기업 취업자가 38.1%였고, 4년제 대학 졸업자는 32.6%였다.

## 2.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는 취업여부, 고용형태, 대기업 취업여부이며, 독립변수는 개인 및 가구배경과 출신학교 관련 변수, 취업준비 관련 변수들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개인 및 가구배경은 성별, 남성보호자의 학력, 가구소득을 설정하였다. 출신 대학 관련 변수에는 학교지역과 전공, 학점, 수능점수가 있으며, 취업준비관련 변수는 어학연수 경험, 직업훈련 유무, 자격증 유무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3개의 경제활동 관련 종속변수는 6차년도 데이터에서 모두 추출하였는데, 취업 여부 변수를 조사 시점 당시의 일자리 유무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고용형태와 대기업 취업여부 변수는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자영업자나 무급가족 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정규직 여부를 가리는 문항은 근무형태에 대한 문항(6차년도, F5Y05010)을 이용하였다. 대기업

8)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7차년도(2010년) 조사에서는 먼저 졸업하는 여학생을 보정할 수 있는 남성 대학졸업자를 추가 표집하여 조사를 시도하였음. 7차년도 조사부터는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관련 문항은 직장의 전체 종업원 수를 묻는 문항에서 100인 이상의 응답은 대기업으로, 이하는 중소기업으로 처리하였다.

설명 변수들의 구성과 처리를 살펴보면, 대학 학점의 경우 조사된 가장 최근 한 학기 성적을 사용하였고, 수능점수<sup>9)</sup>의 경우 언어영역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어학연수와 자격증, 직업교육훈련의 경우 2차년도에서 6차년도까지 1번이라도 경험이 있으면 '있음'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1차년도 데이터에서 '남성보호자의 학력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초등학교 미만=6년, 중졸=9년, 고졸=12년, 대졸=16년, 대학원(석사)=18년, 대학원(박사)=21년으로 연속 변수화 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6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가구소득 변수가 2가지 타입으로 제공되었다. 즉 연속형 변수(F5Y08043)와 범주형 변수(F5Y08043)인데, 원 질문인 '지난 1년간 귀댁의 가구소득'에 대해 '잘 모름' 응답을 할 경우는 범주형으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속형 변수만 사용하기에는 결측치가 많아서 범주형 변수의 응답을 평균값으로 대체하여 연속형 변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표 3〉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처리
종속변수	취업 여부	취업=1, 미취업=0
	정규직 여부	정규직=1, 비정규직=0
	대기업 여부	대기업=1, 중소기업=0
설명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전공계열	인문=1, 사회=2, 교육=3, 공학=4, 자연=5, 의약=6, 예체능=7
	지역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학점	최근학기 성적, 백점으로 환산함
	수능점수	수능등급(언어영역, 1~9등급)
	어학연수경험	있음=1, 없음=0
	자격증 취득	있음=1, 없음=0
	직업교육 훈련	있음=1, 없음=0
	아버지 학력	연속형
가구소득	연속형, 일부 범주형은 연속형 변수로 전환	

〈표 4〉는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주요 특징을 보면 어학연수 경험 및 자격증 보유는 4년제 대학이 전문대보다 높은 반면, 직업훈련은 전문대 비중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문대보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아버지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은 전문대 그룹 평균 418만원, 4년제 489만원으로 4년제 가구소득이 높았다.

9)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에는 조사 대상자들의 대학수학능력점수 2005년도~2009학년도 데이터가 함께 제공됨. 수능점수에는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선택)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되고 있음. 이 중 고등학교 코호트는 2005학년도 수능에 가장 많이 응시하였고, 그 중에서도 언어영역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5학년도 언어영역의 등급을 사용함.



〈표 4〉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단위 : 명)

변수		전문대			4년제		
		N	평균값	표준편차	N	평균값	표준편차
취업형태		509	0.6876	0.4639	353	0.5269	0.5000
고용형태		337	0.8042	0.3974	179	0.6480	0.4789
대기업		328	0.6189	0.4864	175	0.6743	0.4700
성별		509	0.3301	0.4707	353	0.1360	0.3433
대학 전공	인문	509	0.0373	0.1898	353	0.1048	0.3068
	사회	509	0.2141	0.4106	353	0.3031	0.4603
	교육	509	0.0629	0.2430	353	0.0935	0.2915
	공학	509	0.2515	0.4343	353	0.1445	0.3521
	자연	509	0.0943	0.2925	353	0.1416	0.3492
	의약	509	0.1415	0.3488	353	0.0425	0.2020
	예체능	509	0.1611	0.3680	353	0.1643	0.3711
출신 대학 지역	서울	509	0.0904	0.2870	353	0.2040	0.4035
	경기	509	0.3183	0.4663	353	0.1246	0.3308
	충청	509	0.1218	0.3274	353	0.2465	0.4316
	경상	509	0.2004	0.4007	353	0.2181	0.4136
	전라	509	0.2299	0.4212	353	0.1983	0.3993
학점		465	73.1677	12.4620	348	74.5560	9.1518
수능점수		240	6.4125	1.6417	298	4.9161	1.7045
어학연수		509	0.0727	0.2599	353	0.1445	0.3521
자격보유		509	0.3988	0.4901	353	0.4986	0.5007
직업훈련		509	0.2240	0.4173	353	0.1813	0.3858
아버지 학력		464	10.8901	2.8834	333	12.5886	2.9230
가구소득		386	418.108	639.74	287	489.8537	832.1289

#### IV. 분석 결과 및 해석

##### 1. 전문대, 4년제 졸업생의 취업 결정요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취업결정요인, 정규직 취업결정요인, 대기업 취업결정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각 종속변수는 이진변수(binary)화 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전문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모형1, 2), 두 모형에서 성별과 자격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사한 논문결과와는 다르다. 천영민(2008a), 조민

수(2008) 등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취업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결과는 데이터의 특성상 전문대를 졸업한 남성은 시기적으로 군 제대 후 졸업하여 노동시장 초기 시점이라 2~3년 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에 비해 취업할 수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취업준비 변수 중에서 자격증 보유는 취업에 유의하게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의 효과는 선행 연구 결과마다 다르지만, 권혜자 외(2009)는 자격증 취득자의 취업효과는 미취득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박천수(2010)는 (국가)자격 취득이 대학졸업생의 취업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현재 전문대학 졸업생이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 자격증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힐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외에 전공계열, 학교소재지, 어학연수 등의 주요 변수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모형3, 4), 두 모형에서는 전공계열, 직업훈련 경험여부, 대학 학점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의 경우, 사회계열에 비해 의약계열이나 예체능계열은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가족배경 변수(아버지 학력, 가구소득)를 포함한 모형에서는 자연, 의약, 예체능 계열이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생은 자격증의 취업효과가 있었던 반면, 4년제 졸업생은 직업훈련 경험이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일한 모형으로 분석한 조민수(2008)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4년제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모형에는 수능성적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는데, 수능점수가 높은 경우에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수능성적에 의해 대학서열이 결정되고, 기업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불신이 큰 경우에는 수능성적 변수가 취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신호이론(signaling theory)<sup>10)</sup>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0) 채창균, 김태기(2009)에 따르면,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이 축적될 것으로 기대하는 전형적인 인적자본이론 보다는 소위 좋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이 능력이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 기업이 이들을 선별하여 채용하는 이론으로 봄.

〈표 5〉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결정 요인

	모형1		모형2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1.4107**	(0.695)	2.9979***	(1.0765)
성별	-1.9186***	(0.2762)	-2.3194***	(0.3609)
전공				
인문	-0.1467	(0.5977)	-0.255	(0.7178)
교육	0.0346	(0.5593)	0.0827	(0.7253)
공학	0.101	(0.3372)	0.1762	(0.4336)
자연	0.6992	(0.4764)	0.6167	(0.5872)
의약	-0.0503	(0.3984)	0.2746	(0.5206)
예체능	-0.271	(0.3713)	-0.322	(0.479)
지역				
서울	-0.2623	(0.413)	-0.2764	(0.4935)
충청	0.2173	(0.3837)	-0.1045	(0.4681)
경상	0.1109	(0.3214)	-0.2375	(0.4133)
전라	-0.0479	(0.3111)	0.0434	(0.4108)
어학연수	-0.4823	(0.4306)	-0.7034	(0.5339)
자격증	0.6576***	(0.2416)	0.7046**	(0.3108)
직업훈련	-0.1498	(0.2768)	-0.203	(0.3467)
학점	-0.0013	(0.0090)	-0.0081	(0.0115)
아버지학력			-0.0734	(0.0509)
가구소득			-4E-05	(4.1E-05)
수능점수				
Likelihood Ratio	90.8805***		86.7256***	
N	465		327	

주 :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표 6〉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결정 요인

	모형3		모형4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1.0611	(1.0616)	-3.5698**	(1.8121)
성별	-0.2901	(0.3539)	-0.0188	(0.4368)
전공				
인문	0.6098	(0.4082)	0.9233	(0.5664)
교육	0.1364	(0.4299)	0.0411	(0.5692)
공학	-0.0117	(0.3728)	0.3696	(0.5245)
자연	0.4991	(0.3674)	1.1872***	(0.4532)
의약	1.2445**	(0.6186)	1.896**	(0.7822)
예체능	0.8489**	(0.3553)	1.0473**	(0.4599)
지역				
서울	-0.5976	(0.4124)	-0.3679	(0.5326)
충청	0.1578	(0.3833)	0.3156	(0.4957)
경상	0.6977*	(0.407)	0.7862	(0.5484)
전라	-0.0327	(0.4045)	0.2619	(0.5044)
어학연수	-0.3578	(0.3334)	-0.2073	(0.4498)
자격증	0.2657	(0.2384)	0.4319	(0.3095)
직업훈련	0.6692**	(0.3154)	0.5117	(0.4008)
학점	0.00804	(0.0131)	0.0287*	(0.0169)
아버지학력			-0.0592	(0.0549)
가구소득			0.00016	(0.00016)
수능점수			0.2061**	(0.104)
Likelihood Ratio	33.855***		35.842***	
N	348		231	

주 :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2. 정규직, 대기업 취업의 결정요인

대졸자의 취업결정요인은 노동시장 현상을 양적으로 파악했다면, 정규직 및 대기업 취업 결정요인은 취업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모형으로 적합하다. 특히 본 분석대상에서 여성 졸업자 비중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인 취업 결정요인의 결과와는 다르기 때문에 취업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규직의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모형5),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에서만 남성 보다는 여성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계열은 사회계열에 비해 인문계열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권에서만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 여부는 그 관측치가 적고 가운데 변수 결측치가 포함되어 최종 분석 대상자가 적어 본 연구 결과에는 분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 자료에서 정규직의 구분은 고용형태가 상용직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말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였는데, 고용형태와 관련한 다른 변수들을 더 고려하여 엄밀한 기준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대기업 취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를 보면(모형6),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사회계열에 비해 교육계열이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소재지의 경우는 경기권에 비해 서울지역에서 대기업에서 취업할 확률이 낮았다.

한편, 4년제 졸업자는 일관되게 여성이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빈도가 많은 데이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전공계열의 경우는 사회계열에 비해 자연 계열과 예체능 계열에서 대기업 취업이 높은 것이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 결과와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직업교육 훈련 경험이 없는 경우 대기업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직업훈련 경험이 취업에 영향력이 없다는 선행연구들은 살펴볼 수 있으나 대기업 취업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보고되고 있지 않다. 유추해 보건데, 100인 이상 대기업들의 인력선발 방식은 좋은 대학 출신이나 외국어 능력 등이 더 중시되고,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대기업에서의 직무내용으로 볼 때에도 기술기능의 비중이 높은 직업훈련 경험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모형7).

〈표 7〉 정규직 및 대기업 취업 결정요인

	정규직		대기업			
	전문대(모형5)		전문대(모형 6)		4년제 <sup>11)</sup> (모형 7)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2.0967**	(0.8908)	1.4739	(1.0587)	4.345*	(2.6410)
성별	-1.6951***	(0.4178)	0.0674	(0.4700)	-1.3947**	(0.7981)
전공						
인문	-1.238*	(0.7482)	-0.2678	(0.8759)	1.1903	(0.8920)
교육	1.2447	(1.0846)	2.7267**	(1.0878)	1.6528	(1.1723)
공학	0.1438	(0.4886)	-0.381	(0.4965)	-1.0037	(0.7871)
자연	0.2568	(0.5791)	-0.2363	(0.5104)	1.3677**	(0.7023)
의약	0.1913	(0.5632)	0.1329	(0.4517)	-1.0624	(1.0086)
예체능	0.0184	(0.5212)	0.00089	(0.4766)	1.9885**	(0.7796)
지역						
서울	-0.6848	(0.5106)	-1.1074**	(0.5269)	-0.7011	(0.9616)
충청	-0.457	(0.4794)	-0.5523	(0.4652)	0.2383	(0.8144)
경상	0.7452	(0.4886)	-0.1846	(0.4450)	0.7355	(0.8854)
전라	0.8632*	(0.4907)	-0.2715	(0.4103)	0.3272	(0.8500)
어학연수	-0.3191	0.6018	-0.806	(0.6566)	1.1622	(0.7959)
자격증	0.2438	0.3335	0.0282	(0.3026)	0.8132	(0.5007)
직업훈련	0.6037	0.4221	0.0488	(0.3788)	-1.2385**	(0.5816)
학점	-0.00899	0.0115	-0.0118	(0.0116)	-0.0396	(0.0277)
아버지학력			-0.0078	(0.0496)	-0.1089	(0.0916)
가구소득			-4E-05	(0.0001)	-0.0003	(0.0002)
Likelihood Ratio	45.4288***		26.2926**		38.9341***	
N	307		217		130	

주 :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청년층이 취업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취업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졸자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결과, 첫째, 전문대학 졸업생은 여성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격증의 효과가 뚜렷하게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4년제 졸업생은 의약계열이나 예체능 계열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직업훈련을 경험한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개인의 학점이 높을수록 취업의 유의

11) 수능점수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위에서 제시한 모형결과와 유사하였고, 수능점수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표로 제시하지 않음.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 변수(아버지 학력, 가구소득)를 포함한 모형에서도 자연 계열, 의약 계열, 예체능 계열이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수능성적을 포함한 4년제 대졸자의 경우, 수능점수가 높은 경우에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수능점수가 취업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 신호이론에 근거할 수 있겠다.

넷째, 전문대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은 취업결정요인과 동일하게 여성이 취업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계열은 사회계열보다는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해당 지역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라지역에서 취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문대 졸업생의 대기업 취업은 교육계열이 사회계열에 비해 높았으며, 학교소재지가 서울지역인 경우 취업할 확률이 낮았다.

여섯째,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은 일관되게 여성이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에 여성이 많은 데이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취업에 대한 개인적인 노력으로 어학연수, 자격증, 직업훈련 등의 변수를 선정하였으나, 취업에 미치는 효과로는 전문대학의 경우는 자격증, 대학은 직업훈련 변수 등이 취업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자격증의 경우 자격의 수준이나 대학전공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단순히 자격증 유무에 대한 결과만 있는 점이다. 직업훈련 여부 변수 역시 프로그램 내용이나 직업훈련 강도나 비용 등에 대한 분석이 추가된다면 더 설명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대학졸업자들의 관측치를 확보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이외에 구직활동 관련한 변수, 대학 재학 중 근로경험, 직업기초능력(대인관계 등)에 대한 변수를 추가한다면, 더 설명력이 높은 결과가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 권혜자 외(2009), 국가기술자격의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 김안국, 강순희(2004). 자격취득의 결정요인 및 취업, 임금효과. 노동경제논집. 27권1호..
- 김희삼(2010).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한국개발연구. 제32권 제2호 (통권 제107호).
- 박가열, 천영민(2009). 대졸자 취업 영향요인 분석. 고용과 직업연구 제3권(1). 한국고용정보원.
- 박천수(2010), 대학생의 자격취득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3권 2호.
- 신종각, 조인호(2008).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이용한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분석. 제1회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 이기엽, 최문경(2008). 대학졸업에서 첫 직장까지. 제1회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 이형석, 박완성(2008). 대졸 취업과 관련된 구직활동 요인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21권3호.
- 정태영, 이기엽(2005). 대졸자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학점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8(2).
- 조민수(2008). 출신대학에 따른 대졸자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1회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 천영민 외(2008a),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최바울, 김성환(2003).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성과분석 - 수도권 vs 지방대학.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 채구묵(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4).
- 채창균 외(200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 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28권2호.
- 통계청(2010). 2010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고령층 부가조사결과 보도자료.
- 황여정, 백병부(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2).

## ❖ Abstract ❖

### The Determinants of the college graduate's decision to employment

Kim Min-kyoung, Ryu Ji-young(KRIVET)

This article examines the factors that affect employment of graduates from junior colleges and senior colleges using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case of junior colleges, gender, certificate acquisition and major have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probability. Female students and certificates also tend to have higher employment probability.

For senior colleges, graduates who have majored in medicine, art and sports(physical education) have have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probability.

Also, National Scholastic Ability Test score also affect their employability.

From analyzing the factors that positively influence the employment in permanent position and large enterprises are as follows.

In case of junior colleges, graduates who have majored in humanities course and students from junior colleges located in Seoul tend to have negative effect on position and large enterprises employment probability.

For senior colleges, female students also have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probability.

**Key words:** keep, junior college, senior college, employment probability